

# 슬림폰, 어디까지 얇아졌나

바형 8.8mm · 폴더형 11.9mm · 슬라이드형 14.8mm

보다 얇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인 슬림폰 상용화 경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되고 있다. 업계 관측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에도 슬림 휴대폰 출시 열기는 식지 않을 전망이다. 휴대폰에 많은 기능이 삽입되고 있어 대형화 추세를 피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얇게 만들면 '보다 소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바형·폴더형·슬라이드형으로 구분지어 박형 휴대폰의 진행 추이를 짚어봤다.

글 | 김종을 기자(people@cellular.co.kr)



- 1 2004년 7월 발표된 모토로라의 'RAZR V3'는 두께 13.9mm를 성공시킨 초박형이다. 사진은 국내항으로 발표된 두께 14.5mm의 블랙레이저폰.
- 2 삼성전자의 'SCH-V740'은 두께 14.5mm의 슬림폰. 2005년 연출된 국내 슬림폰 열풍의 효시이기도 하다.
- 3 모토로라가 발표한 두께 14.8mm의 'Z(제트) 휴대폰. 초슬림 슬라이드폰 'Z(제트)'는 알파벳 'A to Z'에서 'Z(제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슬라이드폰 디자인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게 모토로라측의 설명이다.
- 4 LG전자가 '블랙라벨(LG-SV590)' 시리즈 첫 모델로 내세운 '초콜릿폰'으로 두께 14.9mm를 실현했다.

## 폴더 타입 슬림휴대폰

모토로라와 삼성전자가 펼치는 폴더타입 슬림 휴대폰 출시 경쟁에 최근 NEC가 합류했다. 슬림 휴대폰은 모토로라의 '레이저'가 원조로 통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초슬림폰'도 유명하다.

2004년 7월 발표된 모토로라의 'RAZR V3'는 두께 13.9mm를 성공시킨 초박형으로 슬림폰 열풍의 출발점이 된 제품이다. 박형임에도 불구하고 MPEG-4 비디오 재생·블루투스·디지털 카메라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는 게 모토로라의 변.

모토로라의 레이저 휴대폰은 그 명성만큼이나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판매되는 저력을 발휘해 '스타택' 이후 모토로라의 최대 효자 상품으로 통한다.

한편 삼성전자의 'SCH-V740'은 두께 14.5mm의 슬림폰으로 레이저폰과 국내 시장에서 판매 경쟁이 붙었던 제품이다. 또 삼성 제품은 2005년에는 국내 슬림폰 열풍의 효시이기도 하다.

NEC도 폴더형 초박형 휴대폰 경쟁대열에 뛰어 들었다. NEC는 두께 11.9mm GSM/GPRS 방식에 대응하는 휴대폰을 작년 말 출시했다. 크기 101.5×47.9×11.9mm로 130만 픽셀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1.9인치(176×220 도트/6만 5000 색 표시)의 TFT-LCD를, 서브 디스플레이에는 유기EL을 장착했다.

NEC는 "이 제품은 NEC의 연구 개발 분야의 중점항목 중 하나인 초박형



실장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라며 "NCE의 실장 기술과 모바일 기술을 융합하고, 국내외 상품 기획·개발 리소스를 결집해 실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팬택이 작년 러시아 시장에 공급한 제품도 폴더형 초박형 휴대폰이다. 메가픽셀 카메라·MP3·블루투스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도 두께 15.8mm에(무게 75g) 인테나 폴더형 PG-3500' 이 그 주인공.

### 바 타입 슬림 휴대폰

바(Bar)타입 슬림 휴대폰은 국내 업체 브이케이가 원조적이다. 브이케이에 이어 모토로라·삼성전자·팬택도 바 타입 슬림 휴대폰 출시 경쟁에 합류했다.

브이케이가 개발한 두께 8.8mm의 GSM방식 막대형 휴대폰(VK2000)은 수출용으로 개발됐지만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국내에서도 출시됐다. 모델명은 VK-X100. 이 제품을 기점으로 바형의 슬림 열풍도 불기 시작했다.

브이케이에 이어 올 초 모토로라는 두께 10mm의 '슬리버' 휴대폰을 선보였다. 모토로라는 슬림 휴대폰으로 폴더형 '레이저'에 이어 바타입으로 '슬리버'를 출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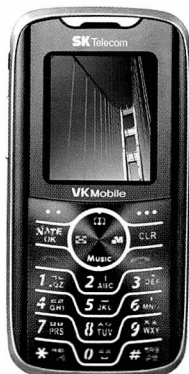
이에 뒤질세라 삼성전자는 일명 카드폰으로 불리는 수출용 제품 'SGH-P300'을 공개한 바 있다. GSM/GPRS 방식을 지원하는 카드폰 P300은 두께가 8.9mm.

삼성전자는 또한 최근 열린 3GSM월드 콩그레스를 통해 두께 9.8mm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바타입 W-CDMA폰(SGH-Z150)을 공개기도 했다. '블루투스' 기능은 물론 화상 통화 기능, 동영상 파일을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VOD 스트리밍, 휴대폰으로 동영상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등 첨단 기능을 갖췄다.

팬택은 작년 9월 러시아 수출 모델로 두께 12.8mm에 무게 75g의 바(Bar) 타입 초슬림폰 'PG-1400'을 내보낸 바 있다.

5 브이케이가 개발한 두께 8.8mm의 막대형 휴대폰(VK2000)은 수출용이었지만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국내에서도 출시됐다. 모델명은 VK-X100.

6 슬라이드 타입 박형 휴대폰의 호시이다. 작년 9월 출시된 큐리텔의 'PT-K1500'.



바타입의 슬림 휴대폰 추이는 이후 두 기<sup>6</sup>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업계 진단이다. 부품의 집적화를 통해 기본 음성기능만을 제공하면서도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축이라면, 삼성전자의 카드폰 같이 하이엔드 기능을 내장하면서 슬림을 추구하는 방향이 또 하나의 축이 된다.



### 슬라이드 타입 초박형 휴대폰

슬라이드 타입 박형 휴대폰 출시 포문은 팬택계열이 열었다. 작년 9월 출시한 'PT-K1500' 휴대폰이 주인공이다.

이 제품에 이어 삼성전자는 'SPH-V8400' 모델로 슬라이드 휴대폰의 두께를 15.9mm로 줄였다. MP3·130만 화소 카메라·음성인식 기능·사진 편집 기능·전자사전·이동식 디스크, 파일 뷰어 등의 기능이 내장됐다.

이에 뒤질세라 LG전자는 '블랙라벨(LG-SV590)' 시리즈 첫 모델로 내세운 '초콜릿폰'으로 두께 두께 14.9mm를 추구했다. 큐리텔 슬라이드폰보다 2mm, 삼성전자 슬라이드폰보다 1mm 얇다는 게 특징이다. 이 제품은 LG전자가 슬림폰 대열에 합류한 야심작이다.

LG전자의 슬림에 대한 '공'은 올 2월 모토로라가 발표한 두께 14.8mm의 'Z(제트) 휴대폰을 통해 다시 무너졌다. 초슬림 슬라이드폰 'Z(제트)'는 알파벳 'A to Z'에서 'Z(제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슬라이드폰 디자인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게 모토로라측의 설명이다.

제트 휴대폰은 박형을 추구했지만 제트는 2.2인치 대형 TFT 컬러 LCD를 채용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슬라이드 방식으로 DMB를 결합한 두께 '17.3mm'의 초슬림 DMB폰(모델명: SCH-B340)을 출시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초슬림 DMB폰'은 지난 12월 DMB 기능 없이 미국에 출시된 기존 '초슬림 슬라이드폰(SGH-T809)'의 디자인 개념을 활용, 위성DMB 기능을 탑재하고도 두께가 17.3mm 밖에 되지 않아 전세계에서 출시된 DMB폰 중 가장 얇다.<sup>K</sup>

